"디지털콘텐츠 분야 기획·마케팅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할 것"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숙명여대 정보통신대학원이 올해부터 디지털콘텐츠 전공 석사과정을 정식 교과과정으로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일부 사이버대학의 학부에 비슷한 과정이 개설돼 있었지만 석사과정에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콘텐츠 석사과정을 맡게 된 문형남(43) 숙명여대 정보통신대학원 주임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과정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취재 신종훈 기자 / **사진** 조민영 기자

"그동안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느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학교측에 디지털콘텐츠 과정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에 정규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고급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석사과정 개설은 학생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숙명여대에 이번 디지털콘텐츠 석사과정이 개설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숙명여대는 이미 4~5년 전부터 '디지털대학 · 지식경영대학 · 문화선도대학'을 모토로 정보통신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대학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교내에 무선랜 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숙명여대의 이번 석사과정 개설은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사안이다. 범정부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관련 고급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는 이번 디지털콘텐츠 석사 과정에서 디지털콘텐츠의 기획 · 제작 · 분석에서 평가 · 관리까지 교육하며,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매년 학계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과목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콘텐츠 과목은 학생들이 추천한 이영곤씨가 강의를 맡는 등 교육생이 직접 업계나 학계의 인사를 추천해 전문강사진을 뽑기로 했다.

숙명여대 정보통신대학원은 이와 함께 기존 전자상거래 전공을 e-비즈니스 전공으로 개편했으며,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 3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고급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돼 오기까지는 이 대학 문형남 정보통신대학원 주임교수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문 교수는 동서경제연구소 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 기자를 거쳐 지난 2000년 3월 전자상거래 과정 개설과 함께 숙명여대 교수로 초빙된 e-비즈니스 전문가로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만 2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실력파다.

문 교수는 그간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쇼핑몰 등 e-비즈니스에 대한 연구와 수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고, 지난해부터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에게 교과과정 개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해 결국 이번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문 교수는 "이제까지의 IT산업 발전이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IT경쟁력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IT인프라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고급전문인력이 풍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교수는 "산업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기술이 있는 인력은 넘쳐나지만 정작 기획과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찾기는 정말 힘들다고 한다"며 "향후 필요한 인력은 단순 기술인력이 아닌 기획과 마케팅 분야의 고급전문인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현재 연세대와 서강대, 중앙대 등의 영상대학원에서 디지털영상 관련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디지털콘텐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과정은 전무하며, 민간교육기관들 가운데서도 디지털콘텐츠 관련 교육 기관은 1개소에 불과해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학 및 대학원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정원규제를 완화해 우수 인력의 관련 분야 유입을 유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프로젝트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조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내 디지털콘텐츠 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기획인력부문으로 전체 필요인력의 41.6%를 차지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 교수는 "지난해 2개 대학과 2개 전문대학 등에서 디지털콘텐츠 학과를 개설했지만 대학 과정과 대학원 과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이번 숙명여대를 시발로 많은 대학원들에서 디지털콘텐츠 정규과정이 개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는 인력 양성

문 교수가 말하는 이번 과정의 또 하나의 운영방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IT환경에 발맞춰 교과과정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이다. 문 교수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교과과정의 변화는 늘 더디게 진행돼 왔다"고 지적하고 "상황에 맞게 교과과정을 유동적으로 운영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교수는 현재 전자상거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2학기 이내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디지털콘텐츠 과정을 원할 경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지난해와 올해 IT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난해에 비록 전자상거래 과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올해 새로운 과정을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들을 직접 분석하고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현장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이다.

문 교수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학생들이 현장에 배치되면 또 다시 6개월 이상 현장업무를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디지털콘텐츠 업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실무를 충분히 익히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과적인 정부지원 필요해

문형남 교수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전공을 운영과 이번 디지털콘텐츠 과정을 개설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정부 지원이다. 지난해 e-비즈니스 지원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지만 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했던 것.

문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e-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되지 못한 것 같다"며 "올해부터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고급인력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위과정 개설 지원은 물론 시설확충 및 실습장비, 교수채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의 정원제한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